

## 해외 어학연수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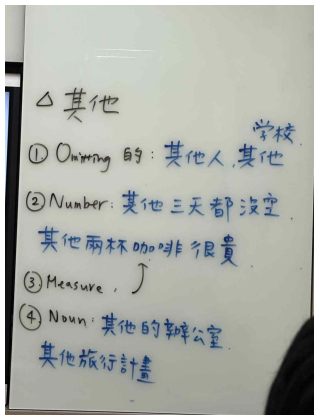
연수국가 및 기관명	대만/동오대학교	연수기간	22.12.26~23.01.16
연수내용	중국어연수		
소속학과	중국학과	성명	권수현

### 연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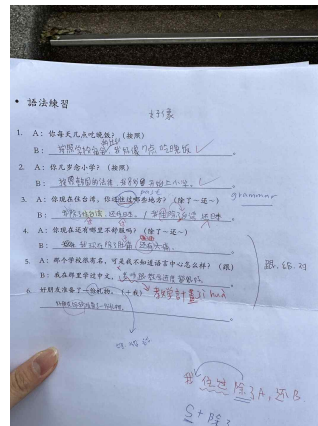
#### ■ 어학연수

내가 속했던 중급반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한 명 한 명 신경 써 주실 수 있어서 좋았고, 작문숙제를 해가면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셨다. 단어와 전날 배운 문법을 매일매일 복습시켜 주셨고 평소 궁금했던 문법들도 수업 중 여쭙보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주셨다. 한국에서 이론처럼 배우는 문법보다, 예문을 들어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시는 게 확실히 더 낫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기초반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내가 발표하는 걸 들으시더니 중급반 수업 들어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해주셨다. 다음날 중급반에서 수업해본 결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 바로 반을 옮겼고,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진1>



<사진2>



#### ■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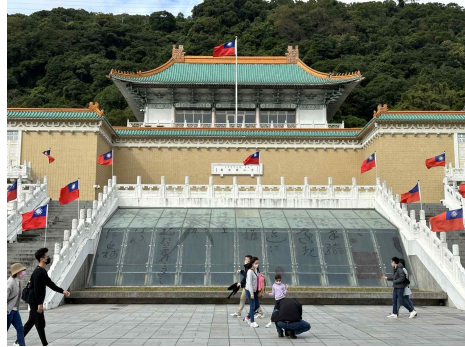
대만학생들과 같이 핑리수를 만들고, 전통복장 체험도 했다. 핑리수는 반죽을 버터와 계란노른자에 섞고, 안에 파인애플 잼을 넣고 모양을 잡아 오븐에서 구우면 되는 간단한 간식이다. 1월1일에는 수업 때마다 창문 밖으로 맨날 보던 민트색 지붕, 고궁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봤다. 고궁박물관은 전시물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돌아도 다 못 본다고 한다. 스린야시장에서 용기내어 취두부를 한 입 먹어봤는데 역시 그 향은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야시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녁시간 이후면 문을 닫는 한국의 전통시장들과 비슷하면서 다른 특징 중 하나였다. 마사지 가게도 가는 곳마다 있어서 한 번 들어가서 다리와 발 마사지를 받았다. 너무 오래 걸은 후라 마사지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마사지사님의 손힘이 너무

강했는지 오히려 피로도가 더한 느낌이었다. 101에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며 먹었던 지 파이는 두툼한 닭고기와 양념이 어우러져 너무 맛있었다.

<사진1>



<사진2>



### ■ 학생교류

마오콩 등 여러 곳을 대만학생들과 같이 갔는데, 다들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설날을 준비 중인 복잡한 시장거리인 다다오청에 같이 가서 조별 미션을 하면서 대만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었다. 우리 조의 미션은 설을 맞아 가게들마다 팔고있는 사탕과 단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는 것이었다. 사탕과 단 음식의 의미는, 한국처럼 대만에도 옛날 집에는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궁이 신에게 사탕과 단 음식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아궁이 신이 집안의 평안을 빌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만학생들 중에 한국인 유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공자묘처럼 설명이 어려운 곳에서는 직접 통역도 해주시며 떨어지는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셨다.

<사진1>



<사진2>



## ■ 기타 활동

새해를 맞아 타이베이101에서 하는 불꽃축제를 봤다. 여럿이 뒤섞여 거리 공연도 보고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며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건 색다른 경험이었다. 멋모르고 들어갔던 휘귀집에서 셋이 메뉴판을 이해하고 주문하는 데에만 30분이 걸렸다. 그 30분동안 담당 점원분이 여러 번 바뀌었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얇은 두부포에 편지를 써놓고 나왔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별로 입에는 맞지 않았지만, 전통 휘귀를 먹어본 것에 만족한다. 대만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꼭 밀크티를 마셨다. 맨 처음 학교 식당에서 밀크티를 주문해봤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힘들게 주문했던 기억이 있다. 점원분께서 내 말을 고쳐주시며 밀크티 시키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 말하기만 했지만, 이후에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밀크티 주문방법을 따로 알려주셨고 덕분에 1일 1밀크티를 할 수 있었다.

<사진1>



<사진2>



## ■ 강의실 및 기숙사

강의실과 기숙사 모두 깨끗하고 환경이 좋았다. 강의실에는 칠판과 티비가 있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할 수 있었고, 기숙사와 거리가 가까워 아침마다 크게 부담이 없었다. 기숙사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다.

## ■ 느낀점

대만 친구들이나 수업을 통해 중국어로 말할 기회가 많았고, 자유시간이 많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과는 다른 대만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유명 음식점이나 관광지에는 한국어 메뉴판과 팸플릿이 준비되어 있어 편했고, 타지에서 보는 한국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비해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 듯해서 아쉬운 건 있지만, 덕분에 타이베이의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하고 사람들과 말도 해보고 짧은 시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점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3주였다. 마지막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돈 아깝지 않게 좋은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 건의사항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독해나 작문수업 시간을 늘려도 좋을 것 같다.

위와 같이 해외어학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2. 4.

제출자 : 권수현

권수현